

# 아기자기 산길 완만한 산세... 넉넉한 자연의 품



무등산 가을 탐방에 나선 등산객들이 푸른 하늘 아래 넘실대는 '역새' 길을 지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새인봉~입석대 코스(6.2km·3시간 30분)



무등산의 전체적인 윤곽과 광주시까지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중거리 코스다. 중심사 주차장 입구에서 능선을 따라 오르게 되며, 운송봉~새인봉~서인봉 등 큰 봉우리 3개를 넘어 뒤 장불재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입석대·서석대까지 둘러볼 수 있다. 힘들지만 즐겁게 탐방할 수 있는 길이다.

▲중심사 주차장~새인봉 구간(1.9km·60분) = 중심사 주차장을 출발해 10분 정도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면 첫 번째 언덕이 나오고, 10분 정도 더 고갯길을 지나면 나무의자가 설치돼 있는 두 번째 공터가 만날 수 있다.

▲새인봉~서인봉 구간(1.6km·50분) = 새인봉에서 10분 정도 능선을 따라 급한 경사를 내려가면 새인봉 삼거리가 나온다. 직진(1.3km)하면 서인봉을 거쳐 중머리재로 향하는 길이고, 좌측(1.2km)은 의재 미술관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서인봉~장불재 구간(1.6km·50분) = 서인봉과 중머리재는 지척거리다. 중머리재는 나무가 잘 자

라지 않는 곳으로, 이러한 풍경을 스님의 머리에 비유해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이 전해온다. 무등산 탐방의 요충지이기도 한 중머리재에서 20분 정도 가면 용추삼거리가 나오는데 길의 경사가 매우 급한 편이다. 삼거리에서 장불재로 이어지는 길의 경사 또한 매우 급해 중간에 쉬어가는 게 좋다.

▲장불재~입석·서석대 구간(0.9km·30분) =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고 주변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재데크가 설치돼 있어 쉽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이다.

▲입석대와 서석대는 무등산의 대표 경관자원으로 2005년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중인 곳이기도 하다.

▲입석대에서 서석대를 거쳐 하산 할 때는 중봉을 통해 중심사 방향 또는 옛길을 통해 원효사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다.

### 탐방전 알아두세요

1. 새인봉~입석대 코스는 중간에 셋거리 없고, 중간 중간 이정표와 헛터가 잘 조성돼 있어 탐방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2. 다만,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몇 군데 위험한 암봉이 있어 탐방시 주의가 요구된다.
3. 중머리재까지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탐방로에는 샘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준비해야 한다.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 ② 등산 코스(1)

## 늦재~옛길 코스(10.4km·4시간 40분 소요)



오솔길 같은 늦재 구간을 지나 옛길 2번을 경유하는 길로 넓게 펼쳐진 무등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원효사~늦재~동화사터~장불재를 거쳐 옛길 2번을 따라 다시 원효사로 돌아오는 코스이며, 무등산의 내부 속살까지도 구경할 수 있는 구간이다.

▲원효사 입구~늦재 구간(0.5km·20분) = 원효사 입구에서 15분 정도 도로를 따라 걸으면 약수터가 있는 늦재삼거리가 나오는데 오른쪽 동화사터 방향으로 5분 정도 가면 늦재 표지판이 보인다. 본격적인 탐방로 시작 지점이다. 길은 잘 정비돼 있으며, 늦재삼거리에는 물을 보충할 수 있는 약수가 있다.

▲늦재~동화사터~용추삼거리 구간(3.4km·85분) = 늦재~동화사터를 지나 능선길을 조금 걸다 보면 가을 무등산의 대표 명차 '옛날 역새' 물결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10분을 더 가면 중봉하단삼거리 이정표가 나온다. 중봉을 거쳐 서석대로 바로 갈 수 있고, 직진해 장불재로 오를 수 있다. 중봉하단삼거리에서 용추삼거리로 가는 길은 산허리를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20분 정도 걸어가면 용추삼거리 삼단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중머리재와 4수원지 등의 경치도 감상할 수 있다.

▲용추삼거리~장불재 구간(0.6km·15분) = 경사가 비교적 급한 들계단으로 이뤄져 있다. 고도가 높고 음지가 많다 보니 겨울이면 들계단 사이로 얼음이 어는 곳이 많다. 겨울 산행시 주의해야 한다. 10분 정도 더 오르면 광주와 화순의 경계가 되는 해발 900m에 위치한 장불재가 나온다. 장불재

에는 잠시 바람도 피하고 쉬어갈 수도 있는 간이 대피소가 있다.

▲장불재~옛길 갈림길 구간(0.7km·20분) = 장불재에서 관리도로를 따라 10분 정도 가면 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도로를 따라 직진하면 원효사고, 우측으로 가면 옛길 2번 출발지인 옛길 갈림길이다. 경사가 심하지 않고, 탐방객이 많은 곳이다.

▲옛길 갈림길~원효사 입구 구간(4km·1시간 40분) = 옛길 갈림길에서 옛길 2번을 통해 원효사로 가는 코스는 옛 선비들이 다녔던 길이다. 광주시가 지난 2009년 탐방로로 신규 조성했다. 원효사까지 가는 최단거리(4.2km)로, 최근 탐방객들의 인기 코스이기도 하다. 중간지점까지는 돌길이며, 이후부터는 흙길이다. 길 중간에 불통거리나 주검동유적, 제철유적지 등 헛터와 역사문화유적지가 있어 심심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다. 제철유적지에서 원효사 입구까지는 15분 정도 걸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능선따라 오르는 3개 산봉우리

### 돌기둥 장관 새인봉~입석대 코스

### 중턱서 출발 서석대·입석대 조망

### 무등산 속살 걷는 늦재~옛길 코스

### 탐방전 알아두세요

1. 늦재~옛길 2번 구간은 탐방로는 어렵지 않은 편이나 옛길이 섞여있는 탓에 중간에 이정표가 많아 방향을 세심하게 확인하며 가야 한다.
2. 원효사 입구로 내려올 때는 옛길 2번을 따라 4km의 내리막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코스 중간의 헛터에서 꼭 쉬어야 한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